

# 이대 통역번역대학원 번역 시험 (2008년 11월)

제공: 정영한 박사 <[www.englishtop.com](http://www.englishtop.com)>

1. 다음 글을 한국어로 옮기시오.

As one who began himself to use the term "relevant" and to insist on its primacy years ago, I feel an obligation to protest the limits of relevance or to propose a redefinition of it to embrace wider terms.

Definitions of education that depend on immediate relevance ignore a small but critical percentage of human beings, the individuals who for some perverse reason are in search of an education that is not dominated by the important, socially and economically required pragmatic needs of a capitalist or a communist or a socialist society. Such an individual is not certain what he wants to be; he may not even be sure that he wants to be successful. He may be burdened with that perverse intelligence that finds the excitement of life in a continuous involvement with ideas.

For this student, education may be a lonely and torturous process not definable in terms of the limits of course requirements or of departmental boundaries, or the four- or six-year span of time required for the bachelor's or graduate degree. This student seems unable to seek or to define or to discuss relevance in terms of externals. He seems somehow trapped by the need to seek the dimensions of relevance in relation to an examination and re-examination of his own internal values. He may have no choice but to assume the burden of seeking to define the relevance of the human experience as a reflection of the validity of his own existence as a value-seeking, socially sensitive, and responsive human being. He is required to deny himself the protective and supporting crutch of accepting uncritically the prevailing dogmatisms, slogans, and intellectual fashions.

2. 다음 글을 영어로 옮기시오.

몇 년 전에 왼손잡이 용품을 만드는 회사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왼손잡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된 것을 국회 전문위원들이 “왼손잡이가 불편한들 장애자나 임산부만 하겠느냐”며 표결에도 가지 못하게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왼손잡이로 산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다. 가위 등 생활용품이 오른손잡이에게 적합하도록 제작된 것은 물론,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도 왼손으로 카드를 들고 타려면 불편하다. 간단히 말해 세상은 온통 오른손잡이 위주로 설계되어 있다.

오른손잡이가 다수니까 불편은 참을 수 있다 치자. 문제는 왼쪽이 ‘나쁜 쪽’이라는 의식이 사람들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다는 사실로, 이는 한국어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언어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그러니까 인간은 단순히 ‘다수와 소수’의 문제를 ‘옳음과 틀림’ 또는 ‘우월함과 열등함’의 문제로 치환하면서 낯설고 다른 존재를 못나고 악한 존재로 비하하는 경향이 있고 이는 피부색과 언어를 뛰어넘는 보편적인 현상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자세가 확장된 것이 성적, 문화적, 종교적, 인종적 소수자에 대한 박해이다. 이렇게 되면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인간의 유전자 속에 아로새겨진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기는데, 다행히도 그럴지는 않은 것 같다. 영국의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왼손잡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사람의 비율이 1900년에는 영국 총인구의 약 3%에 불과했던 반면 2007년에는 이 수치가 세계적으로 11%를 넘어섰다고 한다. 유전적으로 보면 한 사회 구성원 중 8~15%가 왼손잡이인데, 사회·문화적으로 억압을 받다 보니 1900년에는 겨우 3%만이 내놓고 왼손잡이로 살았다는 것이다. 그러다 사회가 점차 개방되면서 유전적 왼손잡이와 실제 생활에서 내놓고 왼손잡이로 사는 사람의 수가 가까워진 것이다. 한 국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왼손잡이로 알려진 사람의 비율은 4.8% 내지 6.6%로 추산된다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개방화·다문화 정도가 선진국에 비해 그만큼 처져 있다는 의미이다. 20세기 초의 영국에 비하면 두 배는 된다는 사실을 위안으로 삼아야 할까? 아니면 현재 세계 평균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할까?

# 이대 통역번역대학원 번역 시험 모범 답안 (2008년 11월)

제공: 정영한 박사 <[www.englishtop.com](http://www.englishtop.com)>

## 1. 영한 번역

몇 년 전 ‘관련 있는(relevant)’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그 용어의 탁월한 중요성을 주장하기 시작한 바로 그 당사자로서, 나는 ‘관련성’의 한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다 광범위한 용어를 수용하기 위해 ‘관련성’을 재정의할 것을 제안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낀다.

교육에 대한 정의들 중 직접적인 관련성에 의존하고 있는 정의들은 사람들 중 그 비중은 적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들을 간과한다. 이 개인들은 무언가 불합리한 이유로 자본주의,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 사회의 중요하고도 사회적·경제적으로 요구되는 실용적인 필요에 의해 장악되지 않는 교육을 추구한다. 그러한 개인은 자신이 무엇이 되고 싶은지에 관해 확신이 없고, 심지어는 자신이 성공하길 바란다는 점에 대해서도 확신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는 계속적으로 여러 사상과 관련을 맺는 가운데서 삶의 자극을 찾는 불합리한 지성에 짓눌려 있을지도 모른다.

이 학생에게 있어, 교육은 고독하고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으로서, 이 과정은 수업의 요구사항의 제약이나, 학과별 경계, 또는 학사학위나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4년 혹은 6년의 기간이라는 측면에서 정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학생은 외부적인 요소라는 측면에서 관련성을 추구하거나 정의내리거나 혹은 논할 수 없는 듯 보인다. 그는 자기 자신의 내부적인 가치에 대한 고찰 및 재고찰과 관련하여 관련성의 차원들을 추구할 필요성이라는 함정에 어떤 식으로든 빠져있는 듯 보인다. 그는 인간 경험의 관련성을 정의함에 있어, 가치를 추구하고 사회적으로 민감하며 빠른 반응을 보이는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존재가 갖는 타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의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부담을 떠맡을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그는 자신을 보호해주고 지탱해주는 버팀목에 의존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 버팀목은 만연한 독단적 의견, 구호, 지적인 유행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 2. 한영 번역

A few years ago, a bill was presented in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The bill was aimed at supporting left-handers by implementing various measures such as providing tax breaks for companies that manufactured products tailored to left-handers' needs. However, some expert lawmakers prevented it from being put to the vote by questioning, "Are left-handers experiencing as many inconveniences as people with disabilities or pregnant women?" However, in actual fact, living in Korea as a left-hander is very difficult. Most household goods such as scissors are manufactured for right-handers, and when I ride a bus or a subway train, it is inconvenient to hold a transit card in my left hand and place it against the reader. To put it in a nutshell, the whole world is geared mainly toward the convenience of right-handers.

Let us assume that left-handers can tolerate some inconvenience because right-handers are the majority. The problem is that people have the perception that the left side is the "wrong side." This bias is clearly shown in many languages, including the Korean language. To sum up, people tend to translate the matter of "majority vs. minority" into that of "right vs. wrong" or "superiority vs. inferiority," denigrate unfamiliar and different people, and regard them as inferior and evil. This prejudice is a universal tendency that transcends racial and linguistic boundaries. This attitude develops into persecution against sexual, cultural, religious, and racial minorities. Therefore, people may be concerned that discrimination against minorities is programmed into human genes, but fortunately, that does not seem to be the case. According to a British study, the proportion of Britons who were known to be left-handers was a mere three percent of the British population in 1900, but the corresponding global figure exceeded 11 percent in 2007. Biologically speaking, 8 to 15 percent of people in a society are left-handers, but due to social and cultural oppression, a mere three percent of the British population declared themselves left-handers in 1900. However, as society has become more open-minded, the gap between biological and social left-handers has narrowed. According to a study conducted in Korea, the proportion of Koreans known to be left-handers is estimated to be 4.8 to 6.6 percent. This figure indicates that the level of opening and pluralism of Korea lags significantly behind the levels of advanced nations. Should Koreans find solace in the fact that the figure is twice that of early 20th-century Britain? Or should they feel ashamed of the fact that the figure is only half the current global average?